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

거리서 장터서…표심잡기 불꽃 유세전

순천, 단일후보 vs 無5명 각개전투
화순, "신불자" "비방전" 날선 공방

4·2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4일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돌입했다.

야권 단일후보 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 간의 다자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순천 국회의원 보선은 각 후보들이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장터를 찾아 유세를 펼치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렸고, 화순군수 재선거는 각 후보들 간 날선 공방을 펼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순천 국회의원 보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장이 열린 황전면 괴목장터 등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야권 단일후보와 무소속 후보 6명 등 7명의 후보는 이날 오전 괴목장터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오전 8시께 조례동 사거리에서 이정희 당 대표와 강기갑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 단일후보인 저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 첫날부터 총력전을 펼쳤다. 또 배우 문성근씨가 오후 순천대 앞 유세에 동참하는가 하면,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순천에 상주키로 하는 등 중앙당 차원에서도 '순천 올인'을 선언했다.

무소속 조순용 후보는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주암면과 승주면, 서면 등 시골지역 공략을 목표로 삼아 노인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역시 무소속인 박상철 후보와 구희승 후보 등도 이날 오전 순천시 조례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괴목장 등에서 거리유세를 펼치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젊고 참신함'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무소속 허상만 후보는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순천대 정문 앞에서 거리유세를 가진 데 이어 괴목장을 찾아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고, 무소속의 허신행 후보도 이날 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농림부 장관 출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무소속 김경재 후보는 이날 오전 연향동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을 갖고 아파트 주부 층을 겨냥한 유세전에 주력했다.

◇**화순군수 재선거**=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4명은 자신들이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하고 있는 화순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홍이식 후보는 이날 오후 화순군 화순읍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과 출정식을 차례로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최인기·김영록 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홍 후보의 승리를 위해 단합된 힘을 과시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무소속 임호경 후보도 이날 이양면 5일장, 화순읍 광주은행 사거리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했다. 두 후보의 2파전 전망 속에 첫날부터 두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기도 했다.

무소속 임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자는 현재 금융거래 회복중인데도 제1야당에서 검증 없이 공천했고, 홍 후보는 동생 채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신용회복절차는 본인의 주채무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은 "동생이 사업에 실패해 형인 제가 보증채무를 안게 됐고 결국 금융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한 뒤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후보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공방 속에 민주노동당 백남수 후보는 이날 오전 광덕리 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벌인데 이어 오후에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100배(拜) 유세'를 펼쳤다.

진보신당 최만원 후보도 광덕지구와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화순군을 살 맛나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최 후보는 이날 오후 첫 유세를 통해 복지공약 등을 홍보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박빙 강원지사·분당을·김해을
與野 당력 총결집 맞춤형 지원

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 14일 여야는 당력을 집중 후보 지원에 나섰다. 특히 주요 격전지인 강원지사, 성남 분당을 및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선거구별 맞춤형 정책·조직·유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분당을의 경우 그동안 강재섭 후보 홀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당 차원 선거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인물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선거구도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스타급 의원'들을 동원한 유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강원에서는 '당 대 당' 승부가 펼쳐질 것을 예상하면서 강원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전날부터 2박3일간 강원지사 보선 지원에 나선 안상수 대표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정책공약 발표회 등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여당으로서 유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다.

김해을에서는 김태호 후보의 '지역 일꾼론'을 정책적, 조직적으로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중앙당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한 지원에도 나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에 잡히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서울-강원 1시간대 생활권, 분당의 주거가치 상승, 김해의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화 등의 공약을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야 4당**=전날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은 사상 최초로 후보등록 이전에 후보단일화를 타결한 기세를 몰아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세워 이날부터 유세전을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노당 이정희 대표, 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첫 공동 순회유세를 위해 춘천으로 출동, 춘천 팔호광장에서 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를 했다.

지도부의 공동 유세는 이날 춘천을 시작으로 16일 원주·분당, 17일 김해·순천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23~24일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도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손학규 대표와 최문순 후보가 출마한 분당과 강원은 물론 참여당이 단일후보가 된 김해을에도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의원들을 일정에 맞게 배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 위원들이 14일 국회 프레스센터 정론관에서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0여명의 위원들은 이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신성장동력 10개사업 집중육성
전기차·문화콘텐츠 등 선정

전기차와 해상풍력, 문화콘텐츠, 박막태양전지, 바이오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이 정부의 신성장동력 10대 과제로 선정돼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육성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10대 과제 후보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등을 예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9월까지 10대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어떤 산업이 10대 과제가 될지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신성장동력 17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국회의원들 과학벨트 유치는 '남의 일'
호남권 유치위원회의 대거불참
"지역 현안 왜 지도부 눈치보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호남권 유치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회의에 전남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 눈총을 샀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11명의 전남지역 의원 가운데 유선호, 이윤석 의원만 참석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낙연 사무총장, 김영록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과학벨트 유치를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전남도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전남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호남권 유치에 적극 나설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미운 털'이 박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벨트 유치가 광주만이 아닌 전남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인데다 전남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리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김 의원이 광주시당과 협의를 통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에 대해 광주시의 현안 사업이라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달초 4~5개 부처 소폭 개각
농림·환경·국토장관 교체 유력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초반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개각 시기는 4·27 재보선 직후, 1~2주 내에 단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개각 폭은 구제역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부처 장관과 '장수 장관'을 위주로 4~5개 부처가 유력한 상황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구제역 사태로 이미 사의를 표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으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에 따라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과 재임기간이 오래된 윤증현 기획재정 장관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들 4개 부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치인의 경우 친박계 이계진, 친이계 홍문표 전 의원이, 관료 중에서는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개각에 앞서 4강 대사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라인의 정비가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